

Life is wonder full KT

고객가치혁신(Customer Value Innovation)

지식강국 대한민국 IT서포터즈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기술

KT

1%나눔

우재단

>>> 함께하는 세상 / KT IT서포터즈

‘지식 기부’ 새 문화 창조

“IT기부문화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 사회 약자층 호응 높아

“IT지식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이를 활용해 실제로 돈 버는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KT의 IT서포터즈가 아니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 평호씨는 "IT지식에는 자신 있지만 과연 실제로 돈 버는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며 "이제는 일을 통해 실력을 쌓아갈 때라는 IT서포터의 말을 듣고 자신감을 갖게 돼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이하 중증연대)'가 위탁·관리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www.ilpnc.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밤을 세워가며 일할 정도로 누구보다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평호씨가 이런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KT(대표 남중수)가 운영하는 IT서포터즈 힘이 컸다.

KT는 지난 2월 IT 나눔을 통해 '지식 기부'라는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IT 서포터즈를 출범시키고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평호(35세)씨는 초·중·고 검정고시를 1년 만에 모두 패스할 정도로 의지가 강하고 IT지식이 풍부했으나, 손놀림이 자유롭지 못해 3차원 마우스를 사용해 인터넷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증장애인이다.

IT서포터즈는 IT의 혜택과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인터넷과 IT기기 활용지원, 맞춤형 교육, 영세 소매점에게는 IT기술 무료 컨설팅 등을 하는 등 전 국민이 IT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 사회봉사 전문가 단체다.

KT의 IT 서포터즈는 지난 2월 출범이후 100일 동안에만 사회봉사활동 3000여 건, 8000여명에게 IT 지식기부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10만 여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이달에는 사회복지법인 '피노키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홈페이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중증연대'에 웹마스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중증연대는 이를 기반으로 월 20만 원 정도의 위탁료를 받고 홈페이지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동산원'의 홈페이지도 위탁관리하고 있다.





중 증연대 김정대 씨는 “일반인들에게 20만원
은 은 작은 돈일지 몰라도, 우리가 직접 일을 하
며 버는 20만원은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
했다.

중증연대는 이번 협약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지
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면 충분히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단체·소규모 시민단체들의 경우
처음 거금을 들여 홈페이지를 오픈한 후 이를 관리
할 IT지식이 없어 방치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
만 전문 업체를 사용해서 관리하기에는 재정적 부
담이 컸으나 이러한 중증연대의 사업이 대안이 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홈페
이지를 위탁·관리함으로써 틈새시장을 개척한다
는 것이 중증연대의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의 홈페이지를 위
탁관리하게 될 사람들은 김정대(40세, 남), 이평호
(35세, 남), 최종식(31세, 남)씨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KT IT서포터즈로부터 매주 4
일 3시간씩 웹마스터 과정 교육을 받아왔으며
HTML, 포토샵, 드림위버, 일러스트레이터, 플레
시, UCC 등에서 수준급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KT 김재현 IT서포터는 “군대 가기 전에 는 모두 ‘내가 군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지만, 훈련소에서 훈련받으면서 저절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웹사이트 관리 도 실제로 일을 하면서 부딪치면서 배우면 된다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밝히고, 김정대·이평호·최종식 씨는 이제 웬만한 것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량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10만 명이 넘는 IT 소외계층에게 IT교육을 실시해 온 KT IT서포터즈는 향후 중증연대의 사례와 같이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IT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KT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진출이 비교적 용이한 웹디자이너, 홈페이지 관리, 출판 디자인, 사무 보조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활용 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들 간 정보격차지 수는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KT는 IT서포터즈의 활동으로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IT서비스 활용 방법을 전파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

총 10만명 넘는 소외계층에 IT교육 실시

